삼성OLED, 세계시장 45% 장악

4월9일 SNMD에서 사명 변경 … 능동형 OLED도 2005년 상업화

삼성SDI가 유기EL(OLED) 자회사인 삼성NEC모바일디스플레이(SNMD)의 사명을 삼성OLED로 변경했다.

삼성SDI는 4월9일 김순택 사장과 모바일디스플레이 본부장 심임수 전무(삼성OLED 대표이사 겸임) 등 임직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공장에서 삼성OLED 신사명 선포식 행사를 가졌다.

행사에서 삼성OLED는 ▷OLED(유기발광다이오드) 리더 지위 강화 ▷수동형 사업의 지속적인 성장 추구 ▷핵심기술 확보통한 세계 기술표준 선도 ▷능동형 OLED의 조기 시장진입을 위한 기반 구축 등의 비전을 발표했다.

삼성OLED는 2003년 수동형(PM) OLED의 세계시장 점유율 32%를 기록해 세계 1위를 차지했으며 2004년 40%, 2005년에는 45%까지 시장점유율을 높일 계획이다.

또 2004년 안에 응답속도와 대형화에서 수동형보다 유리한 능동형(AM) OLED의 양산 준비를 마치고 2005년 중에는 제품을 본격 양산할 계획인만큼 OLED 전분야에서 최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된다.

삼성OLED는 현재 부산공장에 월 최대 120만개(1인치급 기준)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1-2인치급 듀얼폴더 휴대폰 외부창용 풀컬러 OLED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.

전 세계 수동형 OLED 시장은 삼성OLED를 비롯해 일본의 파이어니어, 타이완의 라이트디스플레이 등 3사가 제품을 양산중이며 최근 LG전자, 오리온전기, 코오롱, SKC, 대우일렉트로닉스 등 국내기업들의 사업 참여가 잇따르고 있다.

시장조사 전문기관인 디스플레이서치에 따르면, 세계 OLED 시장은 2003년 1703만개에서 2004년 3078만개, 2005년 6011만개, 2007년 1억4440만개로 급성장할 전망이다.

<화학저널 2004/04/14>

Copyright ⓒ 2003 by CMRI 화학경제연구원